

#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 '모든 이를 위하여'

### 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전...7월27일까지 광주가톨릭박물관 교황청 문서·유물·자료 등 전시...전시 연계 교육·강연·체험도

"저희들도 성교회의 전교 사제에 대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교우가 천 명이 넘으면 신부님을 한 분 보내주시고 만 명이 넘는 곳에는 주교님을 보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천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만 명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착한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교황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하루빨리 신부님을 보내주시어 저희 교우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 글은 1811년(신미년) 10월 24일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 비오 7세에게 보낸 편지 일부다. 1801년 벌어진 신유박해 이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에 사제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편지는 북경으로 접수된 후 마카오에 있던 북경 주교에게 보내졌으며 포르투갈어로 번역돼 교황청으로 발송됐다. 편지는 조선대목구 설정에 큰 도움이 됐던 귀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와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이 열려 화제다.

광주가톨릭박물관(관장 김영권)은 오는 7월 27

일까지 특별전 '모든 이를 위하여'를 연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인권평화재단, 천주교광주대교구 경제인회가 후원한다. 이에 앞서 전시는 2023년 하반기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전시 자료는 한국천주교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도움을 준 교황청, 지난 1984년 성 바오로 2세 교황의 광주 방문 등 다채로운 장면과 기록 등이 망라돼 있다.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전시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특별전의 의미는 깊다. 김영권 관장은 "우리나라와 교황청 수교 60돌을 맞아 그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며 "주제가 암시하듯 모든 이를 위해 지향해야 할 공동선에 대해 한번쯤 깊게 숙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교황청 문서들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물과 자료는 교황청 외에도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을 비롯해 한국교회사연구소, 메리놀외방전교회 및 평양교구 사무국, 윤석장면기념사업회 등에서 협조를 받았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최로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오는 7월 27일까지 광주가톨릭박물관에서 열린다.

1부 '교황청의 세계'는 교황청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가 주를 이룬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교황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고)과 만난다. 교황청 면적을 비롯해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성 등 궁금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2부 '편지로 있다: 조선과 교황청'은 편지로 시작된 한국천주교회와 교황청의 만남, 1831년 교황청의 조선대목구 설정 등 조선이 교회 일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1835년 천주교 조선 신자들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게 보낸 편지도 전시돼 있다. 신자들이 교황청에 보낸 세 번째 편지는 조선에 성직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신자들의 감회 등을 담고 있다.

3부에서는 어두운 역사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왔던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끊임없이 소통하다: 일제강점기 한국과 교황청'은 교황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광주의 아픔을 보듬으려 했던 교황청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다. 4부 '해방 이후 대한민국과 교황청, 그리고 광주'는 이번 특별전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다.

교황 바오로 2세의 84년 5월 4일 금남로 방문, 무등경장장 화해의 미사, 대전신학대학(현 광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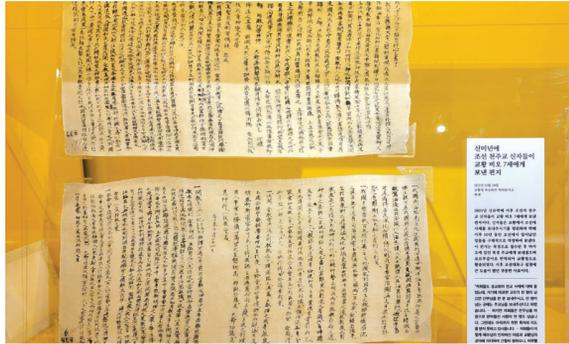
톨릭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소록도 방문 등의 기록과 사진 등이 소개돼 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아픔을 주는 깊은 상처,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특히 광주 출신 여러분의 경우, 극복하기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세례에 있어 여러분에게 화해의 은혜가 내려진 것입니다. (...) 세례에서 한, 서약의 귀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불화와 증오 한가운데에서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의 미사' 강론 중)

이나원 학예실장은 "전시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 메시지를 숙고해볼 수 있다"며 "전시와 연계한 교육, 강연 등도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후 2시 광주가톨릭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을 비롯해 김희중 전 대교구장 등 신부와 신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811년 천주교 조선 신자들이 교황 비오 7세에게 보낸 편지.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이 깃든 광주를 방문할 당시 모습.

## 다양한 용 그림 만나보세용~

### 우제길미술관, 2월 15일까지 '2024 세화전'

2024 갑진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새삼 상기되는 요즘이다. 올해는 더욱이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다. 용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이다. 청룡을 주제로 시작과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제길미술관(관장 김차순)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4 세화전'이 그것. 전시실에서는 용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펼친 작가 17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세화' (歲畫)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 시대,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관내에서 만들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던 그림"을 뜻한다. 이와 연계해 보면 '2024 세화전'은 가까호호, 즉 모든 이에게 상사하는 용의 기운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참여 작가로는 강금복을 비롯해 금보성, 김경자, 김계희, 김영철, 문민희, 문현희, 배혜미, 서봉희, 서은혜, 서이은, 이경희, 장연희, 장영우, 채태병, 한승민, 황보연이다.

강금복 작가의 'happy dragon'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용에 대한 관념을 바꾸게 한다. 위엄과 경외, 숭배로 여겨왔던 용의 자리에 귀여운 이미지의 용이 들어서 있다. 용은 더없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인다. 작가는 '올해 해 용이 행복해야 그림을 보는 이들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서이은 작가의 '빛나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용의 존재를 초월화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용'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인자상생. 작품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전하는 듯하다.



강금복 작 'happy dragon'



서이은 작 '빛나용'

한편으로 입신양명의 성공보다 해학, 풍류와 같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살아가는 메시지를 담고도 있다.

김민경 학예사는 "갑진년을 맞아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는 변화와 도약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림 마음을 주고 받고, 나아가 다양한 용의 작품을 감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30회 무용예술상 작품상에 'DIVINE'

### 광주시립발레단 브랜드 공연...주제만 안무가 5·18 주제

5·18의 아픔을 몸의 언어로 그려냈던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 브랜드 공연 'DIVINE' (안무 주제만)이 제30회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무용예술상은 월간지 '몸'이 주관하고 창무예술원이 주최한다. 무용예술인 및 안무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한 해 동안 공연된 우수한 작품을 발굴한다는 의도에서 시상해 왔다.

심사는 지난해 말 김희숙, 장광열 등이 한 해 동안 펼쳐진 국내 무용공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립발레단이 주제만 안무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선보인 'DIVINE'이 선정됐다.

DIVINE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대형 암막 커튼의 활용, 전위적인 안무 구성, 성스럽고 숭고한 미장센 등을 도입해 5·18의 비경험세대에게도 살풍경을 목도하게 한다.

평단은 선정 이유에서 "클래식 발레에 편중됐던 국내 발레계 풍토에, 과감한 컨템포러리 안무 도입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안무를 맡은 주제만은 프랑스 바뇰레 국제무용



광주시립발레단 'DIVINE' 공연 장면.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제에서 최우수 무용수로 선정됐으며, 뉴욕 컨플렉스 발레단 전임 안무가 겸 발레마스터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미국 포인트프락드 발레 교수.

박경숙 예술감독은 "5·18을 기념하는 공연이 큰 상을 받게 돼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에도 공연 'DIVINE'을 다시 선보일 예정이며, '코렐리아'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기획 중이니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